

전제:제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선 잃는 가치와 얻는 가치를 비교해야 한다.
즉 여러 가치를 수평적으로 평가하고 종합하는 원리만이 유효하다.

ex)

얻:공평, 국방력

잃:비용, 개인적 손해

밑줄:의견 달라도 할말없는 개인적 의견

참고) 남자임. 페미니즘에 반대함

<공평>

가장 민감한 주제라, 여기서 싸움이 시작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성 징병할 돈으로 제 군 생활 월급 더 주는 게 좋습니다.

모두가 동의하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다음과 같이 근거를 제시해보겠습니다.

누군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공평을 주장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평을 주장하는 근거는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는 사실에 기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공평에 관한 논의는 어떤 종류의 손해를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손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불합리한 수준의 손해만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남성만 징집의 대상이다. 이걸 충분히 불합리해 보입니다(적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말했듯, 여기서 이러한 손해를 어떻게 줄일까 하는 것이 공평에 관한 논의입니다.

즉 여성에게 손해를 어떻게 주느냐, 이게 공평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자는 너무나도 감정적인 논의입니다. 그래서 전 공평의 껍데기 적 측면을 위해 여성의 손해를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선 근거에 따라, 손해를 줄이는 것이 '공평 문제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성 징병도 이러한 기능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여성 징병에 드는 막대한 돈을 (가능하다면 국방세 또한 이용해서) 기존 남성(징병 대상자)에게 모종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공평의 측면에선 말이죠

<비용>

비용,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비용이라면 잃는 가치 모두일 것이지만, 지금은 직접 드는 행정적 돈과 노력만 생각해봅시다.

물론 저는 비용 때문에 여성 징병을 하지 말라! 따위의 주장을 성급하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여성 징병에 대한 수많은 주장은, 비용을 딱히 고려하거나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는지 알 도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국방력을 다른 방법으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국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여성 징병 또한 매혹적인 선택지일 수 있으나, 정말로 그런지 알려면, 직접 비용을 알아보고 판단하는 기회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개개인이 엄청나게 엄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판단을 위한 노력조차 없이 '내가 사회 제도를 올바르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진 말았으면 합니다.

신검, 시설 정비, 제도적 정비, 모두 노력이 드는 동시에 비용이 듭니다.

행정 처리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비용이 드니까요, 그리고 이건 절대 적지 않습니다.

돈을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곳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미사일을 살 수도 있고, 경제를 살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죠. 이런 선택지가 꼭 더 낫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선택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징병이 최선인지 판단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국방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국방의 측면에서 잃고 얻는 가치라는 건, 그냥 군인 숫자 쓰는 만큼 쪽 늘고 주는 만큼 쪽 주는 게 아닙니다. 군사 수가 치명적으로 부족하다면, 1,000명을 늘리는 것이 엄청난 가치를 지닐 것이고, 군사 수가 충분하다, 이러면 1,000명은 별 가치가 없겠죠,

그 외에도, 군사들의 평균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자는 약해서 군대에 안 간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똑같이 100명을 충원해도 남성 징병만큼의 효율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신체 능력이 말도 안 되게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 쓰는 만큼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별되는 업무를 줄 수도 있겠지만, 신체적으로 고되지 않은 영역에 그 정도로 인원이 필요할지가 의문입니다. 이러면 다시 효율 문제로 귀결되네요

그러면 모두 검사한 다음에 '남자만큼 강한 여자'라도 쏙아내면 안 되냐? 라는 주장도 종종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그 정도로 적은 인원을 뽑기 위해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신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꼭 '돈 낭비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도, '아, 돈 낭비를 걱정할 수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군사 수가 점점 줄고 있으니, 여성 징병을 통한 국방력 증대의 의미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도 충분히 큰지는 저에겐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다가, 자칫하면 전쟁이 나서 나라가 무너지는 수가 있으니 상당히 예민해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의 손해>

넷상에서 언급하기엔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해서 잘 언급을 안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다음 문장을 생각해봅시다.

A.여성 징병을 통해 여성이 2년 동안 개고생을 해야 한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잃는 가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B.남성 징병을 통해 남성이 2년 동안 개고생을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잃는 가치이다.

A를 부정하려면 B 또한 부정하셔야 할 겁니다. 둘 다 부정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B를 긍정하면서 A를 부정하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이중잣대로 보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공평이라는 키워드와 혼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가치가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곧 겪을 일이기 때문이죠. 영영

<사회적 어찌구>

그 외에도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을 모두 공익으로 보내서 일을 시킨다면, 그만큼의 가치 창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용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징병의 목적과도 어울리진 않아 보이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징병은 '개인의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적국 공격 방어를 위해 준비하겠다'라는 제도인데, 공익은 이와 무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 남성 공익도 탐탁지 않습니다만 공익 제도의 존재 목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얕은 지식 안에서 공익 자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공익이 아니라 사병으로 보낸다, 이러면 경제적 손해 또한 클 것입니다. 국민이 자유로운 곳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애를 낳거나 결혼하는 것이 국가적, 경제적 차원에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리 논리적이지 못하고 필력도 좋지 못해 읽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글의 요점은 타당한 선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입니다. 아마도 각 가치의 크기를 (직접 숫자를 매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개인적 생각에 따라 비교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고민한다면, 그것 자체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질문인,

'여성 징병의 잃는 가치가 A라고? 남성 징병에서도 A는 잃는 가치인데, 왜 남성 징병은 하고 여성 징병은 안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애초에 A의 존재 단독으로 이게 옳은 선택이냐를 정할 수가 없으므로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렇게 더하고 빼 최종 결과물이 (유사한 면이 있는 제도라도) 항상 같을 수도 없고, 비슷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유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 남성 징병을 이용해 비유하려면,

1. 남성 징병의 타당한 면이다.
2. 여성 징병과 유효하게 비교될 수 있다

라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걸 굳이 마지막에 언급한 이유는, 모든 논쟁에서 몇 번씩은 언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